



KORUSTEC

Korea Russia Science & Technology Cooperation Center

주간과학기술동향

2024 - 10호 (04.05)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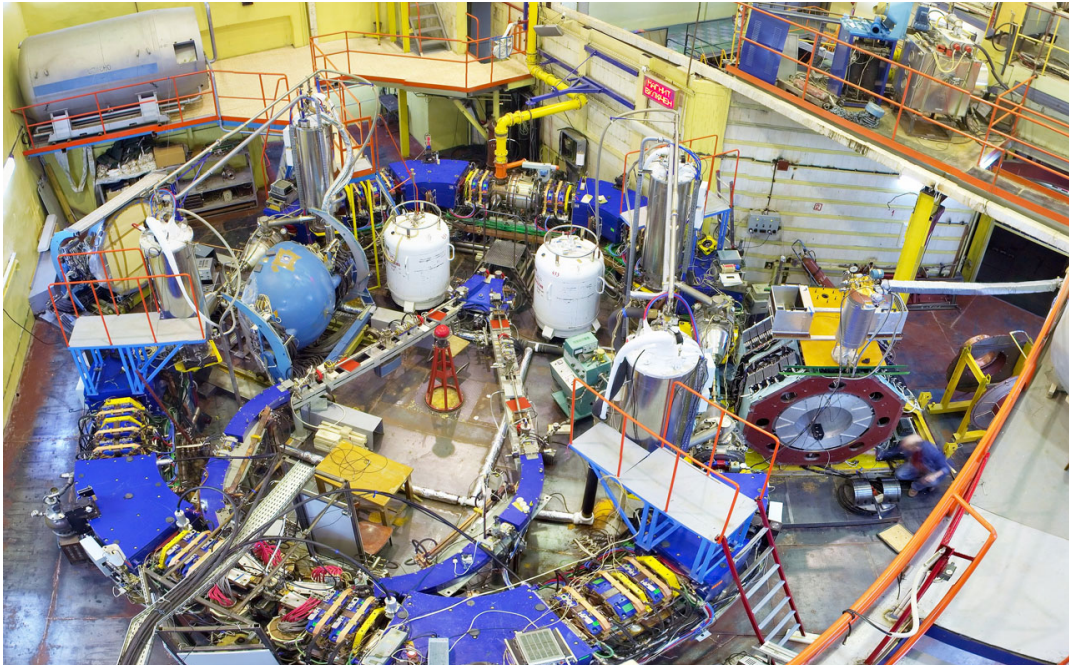
1. 연구개발(R&D)	로스아톰, 차세대 폐쇄형 핵연료주기 시설 테스트 가동..... 1 부드커핵물리연구소(BINP), 200억 루블 들여 전자-양전자 충돌기 개발 중 2 고해상도 지구관측위성 'Resurs-P' 4호 궤도 발사, 첫 촬영사진 공개..... 3
2. 기술사업화	5G·위성 하이브리드 통신 네트워크 개발 도입하나..... 5 로스아톰, 부유식 원전 사업 박차 : 2030년까지 연해주에 최소 2기 건설계획, 추가 계약 15건 수주 등..... 6 로스아톰, 2029년까지 사할린에 수소생산공장 설립 계획..... 8
3. 정책	미슈스틴 총리, 첨단기술 스타트업에 대한 10억 루블 추가 지원 검토 지시..... 9
4. 국제협력	러 이노폴리스大 - 인니 국립연구·혁신처(BRIN), 협력 계약 체결..... 10 2024 국제 원자력 포럼 '아톰엑스포'에 역대 최대 '75개국' 참가..... 11
5. 과학기술 인재양성	로스아톰, 대학생 연구인턴 100명 모집...에너지, 신소재, 의학 등 분야..... 12 시리우스 연방영토, 연구비 총 8억 5천 루블 지원하는 공모전 개최..... 13
6. 업계 인사이트	러시아 산업에서 주목하는 디지털 기술, 글로벌 시장과 차이점은?..... 14 세계 평균 뛰어넘는 러시아 IT시장 성장률, 2024년 주요 추세 및 전망..... 17

로스아톰, 차세대 폐쇄형 핵연료주기 시설 테스트 가동

- 로스아톰은 지난달 소치 시리우스 연방영토에서 개최된 국제 원자력 포럼 "AtomExpo-2024"의 일환으로 핵연료 생산 모듈의 탄소열 환원 공정 실험 가동을 진행함
- 러시아 국영원자력기업 로스아톰은 국가 프로젝트 '도약(Breakthrough)'의 일부로서 세계 최초의 폐쇄형 핵연료주기 시설을 건설하고 있음. 톰스크 세베르스크에 조성 중인 원전 단지에는 납냉각식 신형 고속 중성자로 BREST-OD-300를 갖춘 300MW 동력 장치와 스테이션 플랜트로 구성되며, 혼합 질화물 우라늄-플루토늄 핵연료 생산 및 연료 재처리 모듈이 결합됨
- 농축된 이산화우라늄을 기반으로 하는 기존 핵연료와 달리 우라늄-플루토늄 연료는 사용후핵연료에서 회수된 방사성 플루토늄을 활용하여 자동화된 공정으로 만들어짐
- 현재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가압수력원자로, 고속나트륨원자로 및 소형모듈원전 등은 20세기 개발된 기술을 기반으로 함. 동 4세대 원자력 시스템은 제한된 천연 우라늄 매장량과 사용후 핵연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21세기 혁신적인 에너지 기술의 구현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음

※ 출처 : 리아. 게재일 : 2024.03.25.

부드커핵물리연구소(BINP), 200억 루블 들여 전자-양전자 충돌기 개발 중



[VEPP-2000, 사진출처 : BINP]

○ 노보시비르스크 부드커핵물리연구소 부소장 예브게니 레비체프는 1~2.2GeV의 에너지를 갖는 새로운 전자-양전자 충돌기 설계가 시작되었음을 발표함. 새로운 충돌기는 자체 인프라를 사용하여 개발 기간 및 비용을 최대한 절약할 예정으로, 약 3년 후 완성을 목표로 함. 개발 예산은 200억 루블 이상임(한화 약 3,000억 원)

○ 레비체프 부소장에 따르면 현재 세계적으로 해당 에너지 범위에서 작동하면서 높은 휘도를 기록하는 충돌기는 전무함

○ 부드커연구소는 현재 VEPP-4와 VEPP-2000의 전자-양전자 충돌기 2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 VEPP-4 충돌기는 폐기될 예정임

새로운 충돌기의 프로젝트는 약 3년 후에 준비될 예정이며, 이때까지는 기존 VEPP

※ 출처 : 인터팍스. 게재일 : 2024.03.29.

고해상도 지구관측위성 'Resurs-P' 4호 궤도 발사, 첫 촬영사진 공개



[사진출처 : 로스코스모스]

- 러시아 국영우주공사 로스코스모스는 지구관측위성 리수르스(Resurs)-P 4호가 촬영한 사진을 공개함. 리수르스-P 4호는 지난달 31일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소유즈(Soyuz)-2.1b 로켓으로 발사됨
- 리수르스-P 시리즈는 고해상도의 다중스펙트럼 및 초분광 이미징을 수행하는 상업용 관측 위성으로, 2006년 6월 발사되어 보증 기간인 3년보다 3배 더 긴 시간 동안 우주 공간에서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Resurs-DK 위성을 기반으로 제작됨
- 31일 발사된 리수르스-P 4호에 앞서 1-3호는 각각 2013년 6월, 2014년 12월, 2016년 3월에 발사되었으나, 3기 중 2기가 조기 퇴역함. 2호는 열 제어 시스템과 온보드 컴퓨터 시스템 문제로 인해, 3호는 고속 무선 링크 송신기가 오작동함. 이에 따라 당초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로 예정된 4, 5호 위성의 제작 계획이 미루어짐

(계속)

- 러시아 국방부에 따르면 리수르스-P 1호는 시리아 지형 조사에 활용되는 등 민간용 뿐만 아니라 군사용으로도 사용되었음. 동 위성 시리즈는 지도를 업데이트 하고, 러시아 천연자원부 긴급상황부, 해양수산부 등 유관 분야에 환경 관리 및 보호 등의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함
- 리수르스-P 4호는 네비게이션 데이터 업데이트 외에도 환경 오염 및 비상 상황 모니터링, 광물 매장지 탐색 등의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며, 공간 해상도는 70cm임
- 로스코스모스 발표 자료에 따르면, 공개된 사진은 정보 수신 및 변환 시스템 "Sangur-1U" 및 고해상도 광학 전자장비 "Geoton-L1"을 사용하여 촬영됨
- 발사에 사용된 로켓과 관련 장치는 러시아 사마라 프로그레스 로켓 및 우주 센터에서 제조되었음. 2018년 관련 기사에 따르면 리수르스-P 위성 1기 제작에 드는 비용은 50억 루블(한화 약 733억원) 이상임

※ 출처 : 리아. 게재일 : 2024.03.31.

5G·위성 하이브리드 통신 네트워크 개발 도입하나

- 러시아 국가 무선주파수 위원회는 위성 및 이동통신(주로 5G)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통신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실무 그룹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동통신사 MTS가 하이브리드 통신 네트워크를 테스트하기 위해 주파수 할당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남. 하이브리드 통신 네트워크 실무 그룹에는 디지털 개발부 및 국영기업 로스코 스모스, 기타 관련 부서가 포함될 것으로 보임
- 이동위성통신 서비스는 1990년대 후반부터 발전해 왔으며, Thuraya, Iridium, Inmarsat 및 Globalstar의 네 가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 이 중 Thuraya와 Inmarsat는 정지궤도에서, Iridium과 Globalstar는 비정지궤도에서 작동함
- 이러한 이동위성통신 네트워크 장비 및 서비스는 비용이 많이 들고 데이터 전송 속도가 제한되는 장점이 있으나, 셀룰러 네트워크와 연계시 전송지연을 낮추고 커버리지를 넓힐 수 있음
- 하이브리드 통신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은 2023년 말 정부가 승인한 2030년까지 통신 산업 발전 전략에도 언급되어 있으나 아직 가능성을 타진하는 단계에 있으며 여러 기술적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함

※ 출처 : [CNews](#). 게재일 : 2024.03.29.

로스아톰, 부유식 원전 사업 박차...2030년까지 연해주에 최소 2기 건설 계획 및 추가 계약 15건 수주 등



[사진출처 : 러시아 과학기술10개년]

- 안드레이 레온티예프 연해주 에너지부 장관에 따르면, 연해주 지역 에너지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스아톰과 협력하여 2030년까지 연해주에 최소 2개의 부유식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임. 이에 3월 열린 국제 원자력 포럼 AtomExpo-2024에서 로스아톰은 연해주 투자청과 부유식 원전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 현재 러시아 조선소에 많은 주문이 밀려있어 중국 조선소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부유식 원전 자체는 로스아톰 소유로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연해주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임

(계속)

○ 로스아톰은 세계 최초 해상 부유식 원전 '아카데믹 로모노소프(Akademik Lomonosov)'를 개발하여 러시아 동부 페베크 지역에 설치해 2019년부터 가동하고 있으며, 55MW급 원전 RITM-200을 탑재한 원자력 쇄빙선 3척도 운용하고 있음

○ 러시아 정부는 부유식 발전소를 포함한 러시아 저전력 원전 수출을 촉진할 방침이며, 이에 따라 TSS그룹과 해외 시장을 겨냥한 부유식 원전 건설·운영 합작사 설립 계약을 체결하는 등 관련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기사 링크](#)). 이외에도 로스아톰 사장 알렉세이 리하체프는 아톰엑스포-2024에서 부유식 원전 건설 주문 15건을 추가 수주했음을 발표함

※ 출처 : [RIA](#). 게재일 : 2024.03.29.

로스아톰, 2029년까지 사할린에 수소생산공장 설립 계획

- 로스아톰의 해외사업부(Rusatom Overseas)는 사할린 수소생산공장 건설 부지가 확정되었으며 러시아 국내 및 해외 수출 수요를 확인하였음을 발표함
- 동 시설에서는 연간 최대 36,500톤의 저탄소 '녹색' 수소를 생산할 수 있으며, 중국과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생산한 수소를 판매할 계획임. 로스아톰은 2022년 중국 에너지 설비분야 국유기업인 중국 에너지건설유한공사(CEEC)와 2025년부터 수소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 또한 2024년 6월 말 유즈노사할린스크에 수소 시험장을 갖춘 수소 엔지니어링 센터가 러시아 아카데미 극동지부의 해양 연구 자동화 장비 특별 설계국을 기반으로 운영을 시작할 예정임. 이에 따라 태양광 및 풍력 에너지를 사용하여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가 설치되고 있으며, 오는 5월 15일까지 설치를 완료해 시운전을 가동할 계획임
- 사할린 지역 정부는 상기 수소 시험장 구축을 위해 모스크바 물리기술대학교와 협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바우만 공과대학교와도 협력 계약을 체결함, 장기적으로 수소 클러스터를 형성할 계획이며 작년 지역정부와 국영기업 로스아톰, 가스프롬 및 러시아 극동개발부 등이 협력 MOU를 체결한 바 있음. 연간 3만톤 규모의 1단계 공장이 2026년 말에 가동을 시작하고, 2030년에는 10만톤 규모에 도달할 예정임
- 수소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전주기 수소 기술을 개발하고, 수소에너지 수출 증대 및 국내 수소 산업 촉진 등의 효과가 기대됨

※ 출처 : 인터팍스. 게재일 : 2024.03.05

미슈스틴 총리, 첨단기술 스타트업에 대한 10억 루블 추가 지원 검토 지시

- 미슈스틴 총리의 지시에 따라 러시아 경제개발부 및 재무부는 첨단기술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인 “테이크오프 - 스타트업에서 기업공개(IPO)까지”의 틀 내에서 예산 10억 루블(한화 약 147억원)을 추가 할당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 기술적 혁신 이니셔티브 중 하나인 “테이크오프 - 스타트업에서 기업공개(IPO)까지” 프로그램은 2022년 승인되어 소규모 기술 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이러한 지원 조치에는 생산 현대화, 필요한 원자재 구매, 개인 소득세를 포함한 세금 납부, 입찰 참여 자금 조달 등 사업 및 투자에 사용될 수 있는 우대 대출 제공 등이 있음
- 동 프로그램에 따라 러시아 과학기술 개발 우선순위 분야인 인공지능(AI), 통신 기술, 사물인터넷(IoT), 新 제조기술, 생명공학 및 의약품, 신소재 등 다양한 기술을 구현하는 첨단 기술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2023년 말 기준 러시아 34개 지역의 첨단 기술 중소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미 200여 개에 가까운 스타트업이 최대 2억 5천만 루블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출처 : 리아. 게재일 : 2024.03.27.

러 이노폴리스大 - 인니 국립연구·혁신처(BRIN), 협력 계약 체결



[사진출처 : 이노폴리스 대학]

- 러시아 이노폴리스 대학(타타르스탄 소재) 인도네시아 국립연구혁신처는 의학, 석유 및 가스 산업, 교육 분야에서 인공지능과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동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음을 발표함
- 양측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스마트 농업, 의학, 인공지능, 로봇공학 및 메카트로닉스, 전산과학, 데이터 분석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함. 특히 우주 기술 응용, 자율주행 차량, 반도체 및 스마트 에너지가 유망 협력 분야로 강조됨
- 양국 기관은 공동 연구 및 회의를 조직하고, 학생 및 연구원, 교직원 등의 국제 교류 프로그램 또한 기획할 예정임

※ 출처 : 타스. 게재일 : 2024.04.01.

2024 국제 원자력 포럼 ‘아톰엑스포’에 역대 최대 ‘75개국’ 참가



[사진출처 : 로스아톰]

○ 지난달 25, 26일 러시아 소치에서 13회차 국제 원자력 포럼 아톰엑스포 (AtomExpo-2024)가 개최되어 75개국에서 약 4,500명이 참가하는 기록을 세움.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무차장 미하일 추다코프 뿐만 아니라 헝가리, 터키, 벨라루스, 세르비아 등의 에너지 분야 장관급 인사들이 대거 참가했으며 글로벌 원자력 분야 기업 대표 또한 다수 참석함

○ 참가국 75개 중 부르키나 파소, 말리, 니제르 및 이라크는 동 행사에 처음으로 참가함. 로스아톰은 행사 기간동안 주로 중동 및 아프리카, 중남미 국가와 협력 계약을 체결하고 원전 건설 계획 등을 논의하였으며, 주요 발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부르키나파소, 시리아, 알제리 : 평화적 목적을 위한 핵 응용 분야 개발 협력
- 볼리비아 : 리튬 저장 공장 설립 논의
- 터키 : 소규모 원전 포함한 추가 원전 건설 검토

※ 출처 : 로스아톰. 게재일 : 2024.03.28.

과학기술 인재양성

로스아톰, 대학생 연구인턴 100명 모집...에너지, 신소재, 의학 등 분야



[사진출처 : 과학기술10개년]

○ 국영기업 로스아톰은 러시아 이공계 대학생을 대상으로 100명의 연구 실습 인턴을 모집하고 있음

○ 로스아톰 소속 연구진은 국가 프로그램 ‘러시아 원자력 연구, 공학 및 기술 개발을 위한 종합 프로그램’ 및 자사의 ‘산업 주제별 R&D 통합계획’ 등의 틀 아래에서 수백개의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음. 동 인턴십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1~3년동안 첨단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관련 경험을 쌓을 수 있음

※ 출처 : 과학기술10개년. 게재일 : 2024.03.07.

시리우스 연방영토, 연구비 총 8억 5천 루블 지원하는 공모전 개최

○ ‘시리우스’ 연방영토는 러시아 남부 소치 지역 흑해 연안에 위치한 자치 행정구역으로 2020년 12월 22일 대통령령에 따라 특별 지위를 인정받음. 스포츠, 과학 및 예술 관련 시설이 들어서 있으며 특히 러시아의 과학 기술 발전 및 청년층을 위한 프로그램에 주력하고 있음

○ 시리우스 연방영토 행정부는 과학 연구 및 교육 활동을 위한 보조금 공모전 개최를 알림. 공모전에는 러시아 과학 및 기술 개발 전략의 우선순위 분야에서 연구를 수행할 과학팀이 참가할 수 있으며, 연구 주제는 연방영토의 과학, 기술 및 혁신 개발 방향에 따라 인지 연구, 생명 과학, 인공 지능 및 컴퓨터 과학, 수학, 신소재, 생태 및 기후, 교육학 분야에 해당해야 함. 선정 후 프로젝트 진행 결과에 따라 보조금 계약이 2년 더 연장됨

○ 우승팀은 선도적인 선도적인 과학자가 이끄는 4개의 프로젝트와 39세 미만의 젊은 유망 과학자가 이끄는 5개의 프로젝트 등 두 가지 트랙에서 선정되며, 각 트랙에 따른 보조금은 다음과 같음.

- 첫번째 트랙 : 2024년 2,500만 루블, 이후 연장 시 연간 5,000만 루블
- 두번째 트랙 : 2024년 1,500만 루블, 이후 연장 시 연간 3,000만 루블

※ 출처 : 과학기술10개년. 게재일 : 2024.03.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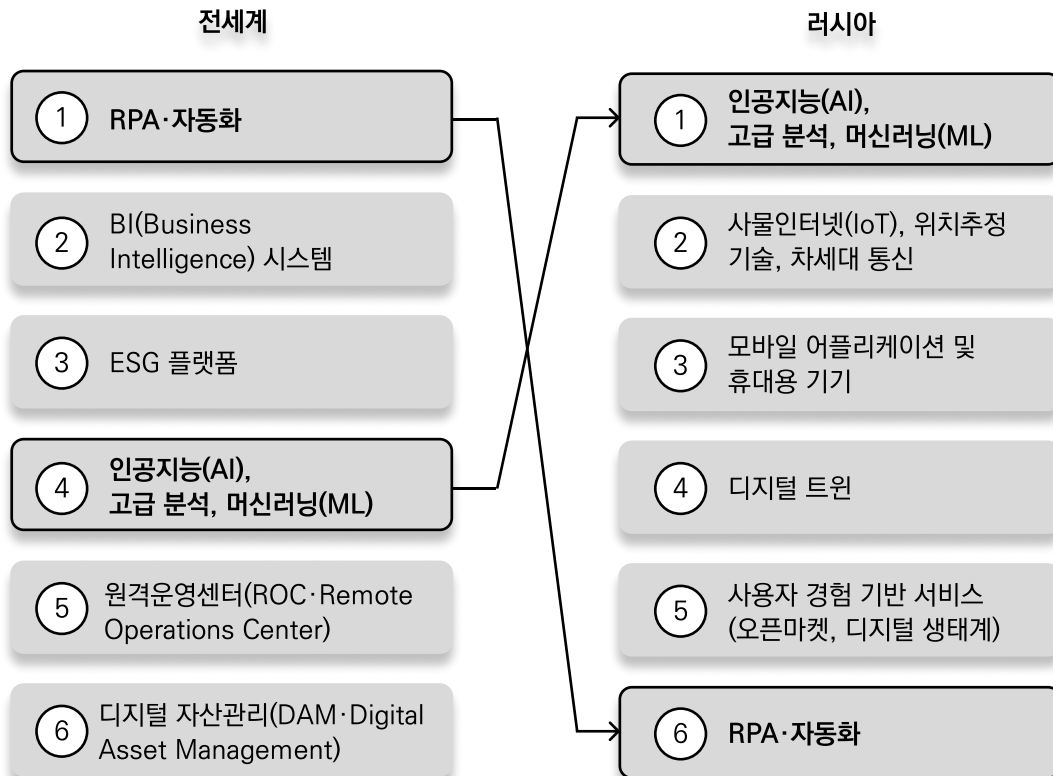
러시아 산업에서 주목하는 디지털 기술, 글로벌 시장과 차이점은?

○ 디지털 기술은 전세계 산업계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러시아 기업 또한 디지털 혁신의 개발과 구현에 크게 주목하고 있는 추세임. 하지만 한편으로 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를 보임

○ 러시아 기술 및 전략 컨설팅사 Axenix의 Industry X 부서장 알렉세이 프롤로프는 RBC 칼럼을 통해 전세계 및 러시아 산업에서 주목하고 있는 디지털 기술 분야를 분석하고, 관련 주요 전망을 제시함

전세계 및 러시아의 산업계 디지털 트렌드 TOP-6

(언급 빈도별)



(계속)

○ EY, McKinsey, Ericsson, SAP Insights 등의 AI 개발 및 전망에 대한 30개 이상의 보고서와 AI 구현 사례에 대한 관련 주요 기업의 출판물을 분석한 결과, 러시아 국내외에서 주목하는 디지털 기술 분야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14페이지 도표 참고)

- 언급 빈도에 따른 키워드를 살펴보았을 때, 상위 6개 분야에서 단 2개의 영역만이 전세계와 러시아 모두에서 유망 분야로 꼽혔음. 그중 첫 번째는 인공지능(AI), 머신러닝(ML)과 고급 분석(Advanced Analytics), 두 번째는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소프트웨어 로봇을 활용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자동화 기술)이었음
- 러시아에서는 산업 디지털화와 AI 사용의 맥락에서 사람들이 산업 사물 인터넷(IIoT)이나 디지털 트윈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보였으나, 전세계적으로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BI) 시스템과 ESG 플랫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외에도 언급된 주요 동향은 다음과 같음

1. 개발 프레임워크 활용 증가

디지털 솔루션을 보다 쉽게 생성 및 구현, 관리할 수 있는 도구인 ‘개발 프레임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특히 대기업의 경우 수백 또는 수천 개의 디지털 솔루션을 필요로 하며, 빠르고 표준화된 작업을 위해서는 이러한 프레임워크의 활용이 필수적임

(계속)

2. 필수 역량으로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폭넓은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과 관련 기술이 변화를 선도하고 생산 효율성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디지털 기술의 활용 능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 역량으로 자리잡고 있으나, 기존 작업 방식에 익숙하고 디지털 활용에 익숙하지 못한 직원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음

일례로, 러시아 보안 전문 기업 Kaspersky Lab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 기업의 69%가 지난 2년 동안 최소 한 번의 사이버 사고를 경험했으며, 그 중 1/3 이상(36%)이 직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하였음. 이에 따라 대기업을 중심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음

3. AI 활용도 ↑ : 스베르 AI GigaChat, 러시아 국산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통합

최근 마이크로소프트가 출시한 AI Co-Pilot(코파일럿, ‘부조종사’) 기능이 크게 주목 받은 바 있음. 코파일럿 기능은 Windows 키보드에 통합되어 이메일 작성, 코딩, 문서 작업 등의 효율성을 높임

러시아 기업 스베르는 GigaChat의 인공지능을 사무용 소프트웨어 패키지 MyOffice에 통합하여 내장된 AI 툴킷을 사용하여 사용자 요청에 따라 문서를 작성하고 이메일의 요점을 정리하여 알려주는 기능을 제공함

※ 출처 : RBC. 게재일 : 2024.03.13.

세계 평균 뛰어넘는 러시아 IT시장 성장률, 2024년 주요 추세 및 전망은?

○ 지난 4년 동안 러시아 IT 시장은 연간 12% 성장률을 보여 전세계 평균(5%)을 크게 상회함. 특히 소프트웨어 부문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연간 19.4%의 기록적인 성장률을 보임

○ 컨설팅 업체 Yakov and Partners(舊 맥킨지)의 디지털 부서 전문가 표도르 체마시킨은 러시아 IT시장 발전을 이끄는 주요 성장 요인과 추후 전망을 분석함

○ 최근 러시아 IT 시장 주요 성장 요인

- 적극적인 정부 지원 및 외국 기업 철수로 인한 시장 공백

2023년 5월 러시아 정부는 2030년까지 핵심 및 종단간 기술(end-to-end) 분야에 대한 자체 학술, 인력 및 기술 기반 구축을 포함하여 기술 주권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술개발 개념 문서를 승인함

2024년에만 2,100억 루블이 마이크로전자공학 지원에 할당됨(2020년 100억 루블 지원). 러시아 내 반도체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관련 기술 개발 및 생산 투자가 진행되고 있으며 2027~2028년 초에 초소형 회로 생산을 시작하여 2030년까지 핵심 반도체에 대한 국내 수요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 있을것으로 기대됨. 러시아 은행 가즈프롬뱅크는 작년 상트페테르부르크 경제 포럼에서 국산 엘브루스 프로세서를 탑재한 ATM 기기를 선보임

반도체 외에도 정부와 민간 기업은 서버,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시스템, 통신 장비, 데이터 저장 시스템 등에 투자하고 있음. 예를 들어, Irtea 회사(통신사 MTS 소유)는 2030년까지 50억 루블 이상의 현대 및 고급 모바일 통신 네트워크 개발 프로그램에 따라 정부 지원을 받아 개방형 OpenRAN 아키텍처를 갖춘 4G 및 5G 이동통신 기지국 개발을 진행할 예정임

(계속)

러시아 디지털 개발부는 2022년 외국 IT기업들이 러시아 시장 철수로 인해 6500억~7000억 루블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다고 발표한 바 있음. 이는 반대로 러시아 IT업체들에게는 기회 요소로 작용하여 그만큼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었음. 디지털 개발부에 따르면 세제혜택 및 보조금 등으로 정부 지원을 받은 러시아 기업은 2년동안 매출(+41%), 영업이익(+43%), 직원 수(+24%) 지표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음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외국 IT 공급업체의 대거 이탈로 인해 절반 이상의 러시아 기업이 소프트웨어 기술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됨. 이에 따라 최근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 국내 기업의 76%가 자체 소프트웨어 개발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남. 처음에는 기업 자체 수요를 위해 솔루션이 만들어졌지만 디지털 솔루션 시장이 확대되는 추세로 이어짐. 로스아톰의 자회사 루스아톰 디지털 솔루션은 러시아 방산업계를 포함한 각종 산업 부문 기업을 위한 70여 가지의 디지털 제품을 개발하고 있음

- 정보 보안 및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성장

정보 보안 분야는 전세계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이나 러시아에서의 성장률은 거의 수직적인 성장을 기록하고 있어 특히 주목할 만한 함. 2022년에는 러시아 기업 및 기관에 대한 DDoS 공격 건수가 전년 대비 700%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사이버 보안 시장 규모가 1,933억 루블에 달하는 등 연평균 24%의 성장을 보임

또한 2022년에만 러시아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은 44% 성장하여 866억 루블에 달했으며, Yandex Cloud의 수익은 2.7배 증가하여 78억 루블을 기록함. 2025년까지 러시아 기업의 약 85%가 클라우드 기술을 사용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는 만큼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됨

(계속)

○ 추후 전망

수입 대체 및 정부 지원으로 인한 러시아 IT 시장의 성장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임. 하지만 이러한 성장은 대부분 국내 사업을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러시아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우호국 시장 수출에 주력할 것이라는 전망에는 회의적임. Russoft 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러시아 IT 기업의 수출 수익이 17%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023년에도 감소한 것으로 보임

또한 전세계적으로 생성형 AI가 주목받고 있으며, 러시아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함. 반면, 서방의 경제제재 리스크, 컴퓨팅 리소스 및 전문인력의 부족 등이 AI 기술 및 시장 발전의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일 내에 관련 기술 구현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 출처 : RBC. 게재일 : 2024.02.28.

주간과학기술동향

편집인 정지원, Iuliia Tsurikova, 이영은,
Ksenia Moiseenko

발행일 2024.04.05

발행처 한러과학기술협력센터

주소 Shabolovka 31G

문의 [russntnews@korustec.or.kr/](mailto:russntnews@korustec.or.kr)
+7-499-322-41-96

